



## 경기도의 품질혁신과 대한민국의 미래



김 문 수  
경기도지사  
031-249-2048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곧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품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산업현장에서의 품질관리는 우리에게 밥줄이 달린 일이다.

미국에서는 미국항공우주국에서 수여하는 NASA상과 전국품질경영상인 MB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을 통해 품질 경영을 독려하고 유럽은 품질경영재단에서 유럽품질상(European Quality Award)을 만들어 1992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일본은 Deming 상의 품질대상 수상자들을 재계가 특별한 예우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존경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

연패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쌍용자동차, 삼진엔엔디,(주)유라 등 경기도 기업들이 출전하여 우수한 품질 관리능력을 과시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나는 지난해 9월 포브스코리아와 한국 품질경영학회가 주관하는 제 5회 포브스코리아 품질경영대상 공공혁신부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수도권 통합교통요금제 실시, 경기비 떡판내, 소방 혁신, 세계도시비엔날레 성공적 개최, 스피드 행정 확산, 아파트 품질 견수단 발족, 영어마을 경영합리화 등 내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 추진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 수상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시행한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통합 환승할인제는 공공혁신의 대표적 성공사례도 꼽힌다. 환승할인제가 도입됨으로써 지난해 7월 1일부터 하루 83만명의 경기도민이 매일 1300원의 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행

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했다. 2006년 160억 원에 이르던 세계 도사비엔날레의 예산을 80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경영관리로 관람객은 오히려 전해보다 67%가 늘어난 668만명에 이르는 등 대성공을 거뒀다.

'아파트 품질 감수단'은 주부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애프터서비스'가 아닌 입주 전 '프리서비스'를 해주는 개념이다. 낯벌이하는 분들이 아파트 입주 전에 미리 가서 보기도 힘든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입주자 입장에서 감수를 해서 하자불 고치도록 해주니 모두가 고마워 했다. '아파트 품질 감수단'은 현재 8개 팀이 있는데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이다.

세계 최고의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서 경기마로 만든 떡을 판매하게 된 것은 발상의 전환의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젊은층에 우리의 좋은 떡도 알리고 동시에 경기마도 팔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군부대와 학교 급식에도 떡이 들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미래를 일어가는 성장엔진이다. 경기도에서만 대한민국 GDP의 1/5의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내총생산(GRPD)은 174조원(2006년)으로 뉴질랜드를 앞시 세계 181개 나라중 31위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LG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나와 경기도 공무원들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는 슬로건 아래서 일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업과 국민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철폐하기 위해 애쓰는 한편 지역산업의 품질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도

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품질향상, 불량률 감소, 사무혁신 등 제품 및 사무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OJT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내 전문인력을 양성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 그룹과 더불어 품질혁신 기법의 현장OJT를 제공하는 등 품질경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농업분야의 품질 향상도 시급하다. 경기도시사가 인증하는 G마크 사업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경기도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소비하게 만들었다. 최근 광우병 파동에서 보이듯 먹거리 걱정이 태산이지만 경기도 내 660개 초중고교 학생 73만여명에게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선정돼 'G마크' 1등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급식재료로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가 제공하는 행정 및 공공 서비스의 품질도 1등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 사업이나 행정 서비스는 더욱 발전시키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통영향 평가 심사기간 대폭 단축등 스피드 행정,광고 평택등 병품신도시사업 참여,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체결,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보상시스템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나를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 모두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 해야만 경기도를 세계 1등 지자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기에 품질 향상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기술표준 2008.7